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45호 (주체 제 23097호) 주체 99 (2010)년 5월 25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전군
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건설물
들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일떠세우는것을 중요
한 투쟁과업으로 제시하고있다.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
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
우자!》, 이것이 강성대국의 대문
을 열기 위한 오늘의 총동력전에서
우리 인민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송고한 조국편과 미래편이 맥박치
는 당의 전투적요소를 높이 받들고
가며 열렬한 애국충정과 미래편의
을 일떠세울 드높은 결의를 안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들 더욱 세차
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로동당시대에 일떠세
우는 건축물들을 어느것이나 다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로 되
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
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우
매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는 부강조
국건설의 경제적토대와 인민생활향
상의 물질적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
지기 위한 투쟁의 지침이며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시대를 강성대국건설
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시대로
빛내이기 위한 목표기치이다.

지난 4월 최첨발전초전설장
을 찾으신 강성대국에서는 석
수없이 지하막장에 천히 들이
가시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
을 보증하자!》는 애국의 구호, 광
의 글방을 새기고 공사속도를 비
상히 높이면서도 그 질을 최상의 수
준에서 보장해나가는 공인건설자
들의 정신세계를 높이 격려했다.
그리고 그들의 고결한 투쟁정신을
전체 인민이 본받아야 할 시대적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우자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
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우
매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는 부강조
국건설의 경제적토대와 인민생활향
상의 물질적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
지기 위한 투쟁의 지침이며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시대를 강성대국건설
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시대로
빛내이기 위한 목표기치이다.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
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우
매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는 부강조
국건설의 경제적토대와 인민생활향
상의 물질적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
지기 위한 투쟁의 지침이며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시대를 강성대국건설
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시대로
빛내이기 위한 목표기치이다.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
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우
매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는 부강조
국건설의 경제적토대와 인민생활향
상의 물질적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
지기 위한 투쟁의 지침이며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시대를 강성대국건설
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시대로
빛내이기 위한 목표기치이다.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
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우
매 대한 당의 전투적구호는 부강조
국건설의 경제적토대와 인민생활향
상의 물질적기초를 더욱 굳건히 다
지기 위한 투쟁의 지침이며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시대를 강성대국건설
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시대로
빛내이기 위한 목표기치이다.

현되는 희한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조국방위에 강성대국전포의 송고
가 타격으로 력사의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그날이
다가올수록 대고조의 전군속도를
최대로 높이며 하나하나의 창조물
들을 선군시대를 대표할수 있게 만
년대계로 일떠세워야 한다.

오늘의 혁명적대고조는 강성대
국의 대문을 열어제기기 위한 최후
적전군 속도에 선군시대의 만년기
를 마련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
전군운동이다. 천만군민이 민족자
존의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
니고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천년
만년을 담보할수 있게 일떠세울 때
강성대국의 토대가 더 굳건히 다
져질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
들은 《모든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
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
세우자!》는 당의 구호를 심장
에 새기고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
우되 강성대국의 것이 나게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

강성대국의 만년대계를 마련해
나가는 강성대국의 만년대계의 사
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를 미래배우
자,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
당겨나가는 우리 인민의 삶의 좌우
축으로 되여야 한다.

강성대국의 만년대계를 마련해
나가는 강성대국의 만년대계의 사
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를 미래배우
자,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
당겨나가는 우리 인민의 삶의 좌우
축으로 되여야 한다.

적으로 이어가시며 대고조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하나
건설해도 기념비적위업을 창조하
여 후대들에게 남겨주시려는 강성
대국의 송고한 조국편과 미래편.
강성대국의 송고한 조국편과 미래
편. 강성대국의 송고한 조국편과 미
래편. 강성대국의 송고한 조국편과
미래편. 강성대국의 송고한 조국
편과 미래편. 강성대국의 송고한
조국편과 미래편. 강성대국의 송
고한 조국편과 미래편. 강성대
국의 송고한 조국편과 미래편.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
들은 열화같은 애국헌신과 송고한
미래편을 지니시고 광활한 미래
를 위하여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
려 모든 건설에서 설계와 기술규
정,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한 열정을 세차게 일떠세우자
한다. 인민의 리익을 찾지려에 높
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보장하며
의 통일적인 지도에 건설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해나가는 기본
전선에서의 사회주의원칙을 확고
고 수해나가는 한다. 우리는 주
체적혁신을 정립체계화하고 건
국의 불길들 일으켰으며 산업
비판한 모든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한다. 우리는 주
체적혁신을 정립체계화하고 건
국의 불길들 일으켰으며 산업
비판한 모든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한다. 우리는 주
체적혁신을 정립체계화하고 건
국의 불길들 일으켰으며 산업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과 비상
한 창조정신으로 세계적인것을
일떠세우자. 이것이 강성대국
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구호이다.

우리의 당의 기본건설정책은
건설물의 속도와 질, 투자의 효
과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
하여 강성대

있는 세계적인 창조물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는 당대한 기상, 조선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든
만들어놓았다. 자신만만한 배
양, 모든 분야에서 선진수준
을 따라야겠다는 비상한 열
정이 차년칠 때 세계적인
것을 창조할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
민의 행복을 위한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에 민족자존의 넓이
것들하고 세계를 향하여 나
아가는 선군시대의 기상이
약동하도록 하는 인민
대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
쟁기풍을 창조해나가는
한다. 군인건설자
를 위한 열정을 세차게 일
떠세우자. 인민의 리익을
찾지려에 높고 인민의 리
익을 옹호보장하며 의 통
일적인 지도에 건설사업
을 계획적으로 진행해나
가는 기본전선에서의 사회
주의원칙을 확고고 수해
나가는 한다. 우리는 주
체적혁신을 정립체계화
하고 건국의 불길들 일으
켰으며 산업비판한 모든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
해나가는 한다. 우리는
주체적혁신을 정립체계
화하고 건국의 불길들
일떠세우자. 이것이
강성대국건설에 펼쳐
나선 우리 인민의 혁
명적구호이다.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과 비상
한 창조정신으로 세계적인것을
일떠세우자. 이것이 강성대국
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구호이다.

많은 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
지기 위한 대고조전군의 성
과가 달려있다. 일군들은
《모든 건설물들을 천
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일떠세
우자!》라는 당의 구
호를 앞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전격의 나팔수
가 되어야 한다. 언제
나 대고조전군에 깊이
들어간 애국적의 기
풍을 높이 발휘하며
시련과 난관을 이
겨내야 할수 있는
혁명적의 창조적
의지와 창조적
의지를 최대로
발휘하여
나가는
선군
시대의
기상이
약동
토록
하는
인
민
대
의
높
은
정
신
세
계
와
투
쟁
기
풍
을
창
조
해
나
가
는
것
을
위
한
하
나
하
나
의
창
조
물
들
에
민
족
자
존
의
넓
이
것
들
하
고

정론

강성대국 《산울림》으로 세계를 뒤흔들자

《김일성상》 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이 안겨주는 심오한 생활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산울림》폭풍이 이 땅을 계속 진감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으신 피로를 풀실 사이도 없이 또다시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공연을 보아주신 소식이 세찬 충격과 의미로 시대를 울리고 있다. 전체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면서 경희극 《산울림》이 심오한 생활의 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주는 시대의 명작이라는 높은 평가를 또다시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우리모두 신심뜨듯이 찬배배의 힘을 분출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리상을 하루빨리 꽃피우자는 절세의 위인의 애국의 호소를 뜨겁게 새겨안고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환희와 격동으로 풀어버리는 조국땅에 다시금 더 크게 울려주신 《산울림》의 메아리는 대혁신, 대박의 불길뜨듯이 노래하는 내심는 총진군대오를 최후승리로 부르는 우람한 진격의 포성이다.

(1)

《대성황리에》, 《대정환속에》... 경희극 《산울림》공연을 펼쳐지 때마다 폭풍같은 환희와 격동의 파도가 굽이치고 있다. 한민 보고 또 보고싶어 두번다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 없고 끝길 돌모든다. 흥분세 안고오는 수수하고 소박한 공연 무대, 산골마을 농민들의 생활이 웃음과 광란속에 펼쳐지는 경희극무대. 과연 무엇으로 하여 공연은 사람들의 심장을 그렇게 강렬하게 뚫어잡는 것인가. 그 메아리는 진정 어떤 심오한 생활의 진리를 안고 울리기에 상시에 온 나라를 《산울림폭풍》으로 풀어버리게 하며 우리 투쟁과 생활의 한복판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는 것인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난관앞에 주저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질입니다.》

우리는 경희극의 주인공들과 함께 웃고 흐뭇하며 천리마시대라는 거창한 년대기의 한복판을 서었다. 2시간도 채 안되는 공연시간은 조국청사의 가장 위대한 한시대를 체현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산울림》은 자기의 소박한 울림으로 천리마시대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지, 어떤 시대를 활주해 오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새겨준다.

리상이 높아야 창조는 훌륭도 크다. 발머리들갈망이나 들춰내보는 것으로는 성취하지 못하며 천리마시대 같은 거창하고 통이 큰 사명을 펼쳐고 2촌작도 만족할 수 없어 3촌작, 4촌작의 목표를 내지는 사람들. 사물지는 강물앞에서 에둘러가는 30리길이 아니라 붉은기둥이 맞닿아 나가는 《적진노를》를 택하는 용감한 사람들. 리상이 높을수록 창조는 활주해 오는데 더욱더 빠르고 애국의 리상으로 모두의 마음이 합쳐지고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고 변이 일어난다.

이것이 세계를 뒤흔들어 천리마시대가 오를 우리 세대의 심장에 울려주는 삼파투쟁의 메아리이다. 천리마시대가 어떻게 이 땅에 오고 5, 000년 역사를 일찌기 없었던 창조와 변혁의 폭풍을 안아왔고 이 시대 인간들이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에서 어떻게 남들이 백결을, 천결을 얻은것을 한결음에 뛰어들어 사회주의강국으로 비약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다. 천리마시대.

누구나 매일에 대한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를 안고 끝없이 창조하고 변혁하던 시대, 사회주의 새 생활이 공기처럼 공방과 농촌, 매 가정에 스며들며 투쟁이 그대로 행보가 되고 창조와 혁신이 더없는 기쁨과 긍지가 되어 모두의 가슴을 부풀게 하며 시대였다. 앞가슴에 빛나는 천리마기사의 휘장이 감도는 인격의 기준이 되고 속박판에 나붙은 혁신자의 사상이 작업반의 자랑이 되고 마을의 자랑으로 되었으며 아름다운 청춘의 사랑도 창조와 위훈의 그 길에 있어 《당신과 나는 혁신자 가슴엔 혼장 빛난다》는 노래가 어디서나 즐겁게 울리던 시대.

6만 t 능력의 분파업연에서 12만 t 의 강편을 뽑아낸 강선로동제급의 기적의 소식이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리며 울려주었고 우리 힘으로 만든 《승리-58》 자동차와 《천리마》 호프락드르가 발동소리 요란하게 공방으로, 전야로 달려나갔던 그 시대에는 누구나 조국을 위해 무언인가 크고 빛나는 위훈을 떨치고있는 열정과 포부로 가슴 들먹이지 않았던가. 말처럼 계획을 수행한것만으로는 시대에 자랑스럽게 설수 없이 10배, 20배의 목표를 내세우고 끊임없이 앞으로, 앞으로 달려고 또 달려던 시대, 나날이 생활이 좋아지고 살림살이가 늘어났다. 커다란 이마를 내다보며 맑은것을, 돌출뿔창 창조하겠다는 일념으로 누구나 가슴 불태우던 잊을수 없는 시대였다.

위대한 시대와 호흡하면 심장이 커지고 창조와 열정이 찬배배로 불태우며 더 높은 리상을 세운 사람이 선구자가 되고 영웅이 되어 만사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시대였다. 위대한 조국의 비약과 번영속에 《나》의 리상이 있었고 아무리 높은 리상과 포부도 집단의 열렬한 호응과 방조속에 현실로 펼쳐지던 격동의 시대. 정령 천리마는 그런 들은 애국의 열망과 포부, 리상에 받들려 이 땅에 나래쳐오른것이다.

리상은 마음속에 안고 사는 매일의 높이이며 그 아름다운 화폭이다. 하다면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심장이 조국을 위한 창조와 열정과 위훈에 대한 갈망으로 뜨겁게 고동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이 자기 자신의 매일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화폭으로 간직되게 될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산울림》 주인공들의 생활에서 새겨안는다.

이 땅에 처음으로 사회주의제도가 뿌리내리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61년에 착각한 이 작품에는 사회주의의 리상은 표현이 전면에서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슬막하는 가난과 빈궁이 지겹게 서렸던 대지에 사회주의행동과 펼쳐진 행복의 생활을 궁지같이 노래하는 산골마을 농민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들의 불같은 사랑과 무한한 애착을 읽는다.

유복한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매일을 앞당겨오자는 절절한 토로에서 사회주의의 매일에 자신들의 더 좋은 앞날이 있다는 신심과 박판을 안고 펼쳐지는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심장의 박동을 들린다.

그 신심, 그 박판의 뿌리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하게 한 리상과 포부가 울려져왔고 그 리상이 애국으로 불리는 천리마시대 인간들모두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쳐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창조와 변혁의 영웅시대가 펼쳐진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그 리상과 포부, 그 힘과 열정이 빈터에서 오렌의 오랜 속망이 현실로 꽃핀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력사의 기적을 안아왔다.

박후와 빈궁속에 잠자던 땅을 흔들어 깨우고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불러온

대고조의 우회소리, 세기의 언덕너머 오늘에 울려오는 그 《산울림》에서 우리는 천리마시대가 일떠세운 사회주의강국 위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할 우리 세대의 사명감을 가슴까지 새겨안는다. 사회주의강국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오늘 조국은 이런 위대한 리상과 포부에 떠받들려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에 질풍같이 내달린다. 명도가 크고 인구가 많아 결코 대국이 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속에 내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는 자,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고 만방에 빛내야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불타는 애국의 심장들에서 불패의 대강국이 솟아오른다.

우리의 강성대국리상은 인류력사의 가장 원대하고 아름다운 리상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열정과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뜻이고 신념인 강성대국 리상에는 우리 인민이 수수천천 바라고 넘던하던 모든 리상과 꿈이 다 있다. 그 어떤 원수도 더는 넘겨다볼수 없는 자주의 강국, 선군의 총대우에 억세게 받들던 푸른 하늘아래 사회주의목표가 물결쳐 설레이고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처럼 높이 울려퍼지는 나라. 이렇듯 위대한 리상과 포부를 지닌 인민의 심장이 어찌 무한대한 창조와 열정으로 고동치지 않을수 있나. 두려움도 없고 못해낼 일도 있을수 없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다져지고 더욱 억세어진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무섭게 폭발하고 허리를 조이고 고난의 전야에 부딪던 씨앗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락원의 열매로 무르익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백전백승의 조신로동당이 우리를 평평한 미래에 인도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너와 나 모두가 애국의 리상과 포부로 가슴들며 더욱 분발하여 강성대국선로의 《산울림》으로 세계를 흔들고 력사를 진동하게 하여야 할 때이다. 저 푸른 하늘에 우리의 위성을 단 한번의 발사로 천일시대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린 《광명성2호》의 발사처럼, 시련의 언덕에서도 조국의 매일을 내다보며 CNC기술에서 최첨단을 돌파한 선구자들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변이 나는 내 나라에 주체철과 주체선유, 주체비료로써 안아온 성장과 2. 8. 남풍의 애국자들처럼, 천년을 쉼없이 만년을 보증하는 애국의 랑심으로 심장 불태우며 강성대국시간표를 앞당겨가는 최철의 돌격대처럼 우리 세대의 창조와 메아리 하나하나가 세계를 진감하고 력사를 진동하는 거대한 《산울림》이 될 때 이 땅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 더 빨리, 더 눈부시게 솟아올라올것이다.

(2)

산울림은 자연의 현상이다. 그러나 시대의 《산울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혁명을 전진시키고 력사의 변천을 가져오는 위대한 《산울림》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는 천리마시대 《산울림》에서 그것을 보고있으며 오늘의 격동의 시대에 그것을 박차게 새기고 있다. 더 좋은 매일을 그려보며 힘차게 전진해가는 산골마을 농민들의 투쟁이 벌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의 구호를 보게 된다.

《조선로동당 제 4차대회를 앞목 100만 t 증산으로 맞이하자!》 《산울림》은 바로 위대한 수령의 호소, 당의 부름에 화답하는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투쟁의 메아리였다.

지난날 달속의 계수나무 옥도끼로 찍고 금도끼로 다듬어 초가삼간 지어놓고 부모처자 화목하게 사는것을 최고의 리상으로 여기던 인민을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높은 리상과 포부를 지닌 힘있고 존엄높은 력사의 창조자로 되게 하신 어버이수령님. 그렇다. 강성대국 《산울림》의 선창자는 우리 장군님이다. 이 위대한 애국의 선창에 천만이 심장을 다 바쳐 우렁차게 화답하는 단결의 대합창이 천지를 진감할 때 그 위력은 세계를 울리고 세계를 울린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 이 위대한 애국의 포부가 펼쳐진 룡남산마루에 우리 장군님 또다시 붓을 들어 한자한자 새겨주신 불멸의 찬필.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함께 고동치고 맥박치며 가장 아름다운 조국의 매일을 소리쳐 부르는 강성대국건설시대의 포부와 리상은 바로 이것이다.

이 땅에 대혁신, 대변혁의 폭풍을 불러오는 우리 리상단결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천만군민의 사랑과 신념의 일치, 리상과 포부의 일치이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어린 《지원》의 원대한 뜻으로부터 이어져온 선군조선의 강성대국리상의 뿌리는 깊고 역세다. 들려온다. 위대한 수령님의 송고한 리상과 열정을 이 땅에서 더욱 활짝 꽃피우실 일념을 안고시고 강성대국승리의 격진장대에 울려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발자욱소리, 발자욱소리.

천만군민을 애국의 선진으로 뜨겁게 불태우는 이보다 더 크고 거대한 투쟁의 메아리, 열정의 메아리, 승리의 메아리를 우리는 모른다. 위대한 애국의 리상을 안고 울리는 우리 장군님 강령발자욱소리에 화답하는 천만군민의 창조와 변혁의 발구름소리, 한마음한뜻의 발구름소리가 시대를 진감할 때 그 힘을 당할 자 세상에 없다.

《산울림》은 수령과 인민의 뜻과 마음의 일치, 리상과 포부의 일치와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안아온 우리 일심단결의 근본이고 이 땅을 뒤흔드는 창조와 변혁의 메아리였음을 우리 세대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새겨주고 있다. 수령을 따르면 승리가 오고 행복이 온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세대가 매일, 매 시각 새기는 진리이기도 하다. 오늘의 승리와 변혁의 시대는 어떻게 왔는가.

고난의 언덕에서 용약 강성대국의 기치를 든 선군조선의 신화는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변이 난 해, 리상실현의 시대는 과연 어느 분의 발자욱을 따라 펼쳐진 것인가. 세계를 뒤흔드는 선군천리마의 발구름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있는 눈부신 기적과 진변들을 새겨보라.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선유의 장대한 폭포는 어떻게 펼쳐지고 미풍과 동풍, 은운의 기적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원산의 불야성은 어떤 신념의 땅에서 흐르느 것인가. 10년을 3년으로 압축한 기적의 시간표에 또다시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강성대국승리의 시간표를 앞당겨가는 《희천속도》는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선군의 하늘아래 백과락원을 펼친 대동강과주합농장의 사파꽃마다는 무엇을 뜨겁게 속삭이고 있는가.

장군님께서 절실하시던 안되는 일이 없고 장군님의 뜻과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면 그것이 곧 강성대국이다. 이것이 우리 인민이 지닌 강성대국리상 실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고 신념이다. 천만군민이 더 높은 목표와 리상을 안고 노도쳐 달려야 할 격동의 시대에 온 나라에 《산울림》폭풍을 불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이 시대를 울린다.

우리는 《산울림》의 격조높은 진폭에서 더 높은 리상과 포부를 안고 창조하고 변혁하며 더 빨리, 더 기세차게 승리의 매일에로 나아가자고 천만을 불러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심장의 호소를 들린다. 그렇다. 강성대국 《산울림》의 선창자는 우리 장군님이다. 이 위대한 애국의 선창에 천만이 심장을 다 바쳐 우렁차게 화답하는 단결의 대합창이 천지를 진감할 때 그 위력은 세계를 울리고 세계를 울린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 이 위대한 애국의 포부가 펼쳐진 룡남산마루에 우리 장군님 또다시 붓을 들어 한자한자 새겨주신 불멸의 찬필.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함께 고동치고 맥박치며 가장 아름다운 조국의 매일을 소리쳐 부르는 강성대국건설시대의 포부와 리상은 바로 이것이다.

이 땅에 대혁신, 대변혁의 폭풍을 불러오는 우리 리상단결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천만군민의 사랑과 신념의 일치, 리상과 포부의 일치이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어린 《지원》의 원대한 뜻으로부터 이어져온 선군조선의 강성대국리상의 뿌리는 깊고 역세다. 들려온다. 위대한 수령님의 송고한 리상과 열정을 이 땅에서 더욱 활짝 꽃피우실 일념을 안고시고 강성대국승리의 격진장대에 울려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발자욱소리, 발자욱소리.

천만군민을 애국의 선진으로 뜨겁게 불태우는 이보다 더 크고 거대한 투쟁의 메아리, 열정의 메아리, 승리의 메아리를 우리는 모른다. 위대한 애국의 리상을 안고 울리는 우리 장군님 강령발자욱소리에 화답하는 천만군민의 창조와 변혁의 발구름소리, 한마음한뜻의 발구름소리가 시대를 진감할 때 그 힘을 당할 자 세상에 없다.

(3)

천리마시대의 《산울림》은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만을 펼쳐보인 것이 아니다. 위대한 포부와 리상을 현실로 펼쳐지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기의 우렁찬 목소리로 새겨주고 있다.

한 제대병사의 높은 목표와 리상이 집단의 단결된 힘으로 실현되어 눈부신 현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우리 조국은 세계를 뒤흔들수 있는 거대한 힘, 그 누구도 가능할수 없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위대한 나라이다. 그 힘은 높은 리상과 포부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 투쟁하는 용감한 군대와 인민의 힘이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모든 격진장들마다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 집단주의의 불길이 최대로 치솟게 하라.

시대의 선구자의 리상과 위훈이 기적의 불길이 되고 전변의 불길이 타오르기까지는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손길이 있어야 한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전 전진에서 우리 당일군들이 일으켜야 할 《송풍기》의 총화력은 다음아닌 집단주의의 불길을 최대로 치솟게 하는 바로 거기에 가해져야 한다.

《송풍기》는 《로》와 가까우수록 그 위력이 커지는 법이다. 언제나 수한 작업복처럼도 대중과 함께 있으며 말보다 실천으로 리상실현의 모터를 튀워주고 방도를 찾아주는 당일군, 진군하는 대오의 앞줄에 남지 승리의 기발을 안겨주는 경희극 《산울림》의 리당원장님의 형상은 강성대국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장엄한 대진군에서 우리 당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가 어디인가를 믿어주고 실천으로 새겨준다.

모 것이 높이, 더 높이 오를수록 깊이, 더 깊이 인민을 찾아가자! 오늘의 선군시대는 조국의 강성과 번영, 리상의 실현이 총대 담보되고 혁명적인정신으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시대이다. 집단주의가 승리의 매일을 앞당겨오는 시대의 불길이려면 거기에겐 위력한 불씨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연을 보시고 이 작품을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나온 다음에 사회주의건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답을 준 작품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선군의 이 땅에서 병사는 애국의 선구자이다.

공복을 벗어도 조국을 만드는 병사의 삼의 좌지는 달라질수 없다. 혁명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형평적인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집단주의 정신이며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서 혁명적인정신을 계승화한 병사는 강성대국승리를 안아오는 창조와 건설의 진군대에 오 시대의 맨 앞장에 서야 한다. 한 제대병사가 고향마을산촌에 울린 《산울림》도 그처럼 크고 위력하게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 제대병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만들어 자기 초소, 자기 일터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황성철》로 불려 때 그 위력과 기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울린 《산울림》에 누구보다 힘차게 화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여러 나라 국가령도자들과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었다

아스마라 에리트레아국가 대통령 이싸야스 아페워르키각하
나는 에리트레아국가 독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5월 23일 평양
압만
하셰미트요르단왕국 국왕 아브들라흐 2 세 페하
나는 하셰미트요르단왕국독립 64돐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5월 24일 평양

아디스 아바바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장 뵙 각 하
나는 아프리카의 남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아프리카동맹의 모든 성원국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대륙의 정치경제적통합을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노력에서 성과를 있을것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프리카동맹 그리고 그 성원국들사이의 친선적인 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5월 21일 평양
뉴델리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프라비라 데비싱 파릴각하
나는 최근 인디아의 망갈로르에서 있는 려계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불행한 소식이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5월 24일 평양

길이 빛날 대동강해맞이혁명사적지

김책공업대학 학생들이 건설한 유보도를 돌아보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선조들이 못한 일을 우리 청년들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훌륭히 건설해놓았다고 거듭 치하하며 크나큰 믿음을 주고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이처럼 우리 인민 모두가 즐겨찾는 대동강변의 한무 한구루, 풀 한포기, 돌계단 하나에도 조국의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의 선창에 응고한 뜻이 깃들었다. 지금 이곳을 찾은 대학생들은 강성대국승리의 새봄을 앞당겨오시려 오늘도 강행군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자욱을 걸음걸음 따르며 주체혁명열의를 대를 이어 꽃피우기 원성해갈 심장의 맹세 더욱 굳게 다지고 있다. 글 및 사진 뽐사지 김종훈

한편의 명작이 봄빛원만한 대동강변에 노래로 울려 퍼지고 있다. 잊지 못할 주제 49 (1960)년 7월 16일 이꽃을 찾으시여 주체혁명열의를 빛내어갈 큰 뜻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읊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 동트는 대동강 해가 솟는다 찬란한 해돋이는 우리의 마음 충추도 희망도 노들로 되어

내 조국강산에 빛날채가리... 그날의 송고한 북 길이 전하는 이 노래를 부르면 대동강해맞이혁명사적지를 찾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대동강변에 어러있는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1년전 주제 48 (1959)년 4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동강호안 제2계단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나오시어 김책공업대학 (당시) 학생들과 같이 구슬땀을 흘리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설계하시고 펼쳐주신 이 공사를 만년대대로 갈래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훈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그후 주제 48 (1959)년 5월 7일 대동강호안 제2계단공사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책공업대학 학생들이 건설한 유보도를 돌아보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선조들이 못한 일을 우리 청년들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훌륭히 건설해놓았다고 거듭 치하하며 크나큰 믿음을 주고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이처럼 우리 인민 모두가 즐겨찾는 대동강변의 한무 한구루, 풀 한포기, 돌계단 하나에도 조국의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의 선창에 응고한 뜻이 깃들었다. 지금 이곳을 찾은 대학생들은 강성대국승리의 새봄을 앞당겨오시려 오늘도 강행군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자욱을 걸음걸음 따르며 주체혁명열의를 대를 이어 꽃피우기 원성해갈 심장의 맹세 더욱 굳게 다지고 있다. 글 및 사진 뽐사지 김종훈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자

유일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데서 당사상사업부문에서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새로운 높이에서 진공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 56 (1967)년 력사적인 5.25교시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어 우리 당을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하나로 같이 사고하고 움직이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유일사상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투철한 수령관을 지닌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선군정치의 철저한 옹호관철자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고있다.

황주군당위원회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높은 방법론을 세워 실천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어떤 방편이 불어와도 오직 우리 당의 사상적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진행

황주군당위원회 사업에서

하고있다. **올은 방법론이 없이는 사상교양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지 않는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는 올은 방법론을 세워 유일사상교양을 원리적으로 참신하게 진행하는데 모를 밝혔다.

이것 군당위원회일꾼들에게는 늘 가지고다니는 교양사업의 출원수첩이 있다. 이것만 보아도 이 곳 군당위원회가 사상교양사업을 얼마나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는가를 느낄 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하부지도사업계획에 일꾼들이 아래에 내려갈 때마다 학습담화의 방법으로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에 관한 문제, 어머니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덕성의 위대성을 원리적으로, 자료적으로 해설해주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벌여나감으로써 구체적인 대책안을 반영하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면서 요점을 높여왔다.

군당책임일꾼이 구포협동농장에 내려가 진행한 해설담화과정을 놓고보면, **당원들속에서 들어간 군당책임일꾼은 작업의 현장에 어머니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명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

서도 농장을 찾으면서 나아갈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면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먼저 주시던 잊지 못할 나날에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군당책임일꾼은 농장원들에게 친출방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근거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잠시간을 리용하여 진행한 해설담화는 농장원들에게 우리 인민이 누리는 수령분, 장군분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가슴깊이 심어주었다.

군당일꾼들과 근무기반의 책임일꾼들의 발걸이 미치지 못하다에서 이런 격심없는 교양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벌어졌다.

군당위원회는 뜻깊은 태양절과 2월의 명절을 비롯한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을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문제를 제기하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소장에 문답식 정견과 선동경연, 예술경연을 조직하면서 유일사상교양을 새로운 높이에서 심화시켜나갔다.

군당위원회는 예술선동의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대적으로 무장시키기로 하였다. **당원들은 줄자를 대고 나무모를 다시 정성껏 심어나갔다.** 올해에도 이 곳 당원들과 노동자들은 식수절을 맞으며 마산에 2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땅상주변에는 수천그루의 뽕나무나 푸른 잎새를 펼치었다.

그렇다. 무성한 숲에는 그것을 가꾼 애국자가 있고 그 국가의 위에는 그를 키워낸 참된 당원일 이 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도 참신하게 짜고들었다. **올해공동사설을 받아안았을 때 군당위원회는 공동사업의 기본사상과 체계, 부문별과업을 통속적으로 해설선전하는 예술선동작품을 기동적으로 만든 다음** 군기동에술선동대를 군간의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내보내어 당의 의도를 깊이 인식시켰다. 예술선동을 배합하여 여운이 남게 벌린 기동에술선동대활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당의 의도, 당의 정책적요구를 똑똑히 파악하고 그들을 새로운 대고조전투에 불러일으키는 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묘술을 찾아내고 방법론있게 진행한 이런 교양과정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하여금 공동사업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유일사상교양을 혁명선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 사업에도 깊은 주목을 돌리었다.

올해 봄 군당위원회가 실시한 동중장의 영농실태를 알아보니 거름운반작업이 저조하였었다. 영농공정을 조급하게 벌여지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 일 호

실로 성 있는 회상기 연구 발표 모임

군당일꾼들은 그 농장으로 달려나갔다. 군당일꾼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황에 맞게 정치사업을 벌여나갔다. 회선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투쟁기풍에 대하여 생동한 자료를 안받침하여 해설하면서 농장원들을 거름운반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거름운반전투에서 군당일꾼들이 발휘한 혁명적인 투쟁기풍은 농장원들의 심장마다에 당정책관철에 대한 투철한 림각과 관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농장에서는 거름운반작업을 훨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당위원회에서 대용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농기계 부속품공공을 제때에 보장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당정책관철에서 발휘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군당위원회는 유일사상교양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수령관,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안된다는 확고한 림각과 투쟁기풍을 세워주기 위한 유일사상교양을 대고조전투에 벌여지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 일 호

분덕군 남이협동농장 제 6 작업반

여기는 영광의 땅 문덕군 남이협동농장 제 6 작업반 모내기전투장이다. 당장전 65톤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려는 농장원들의 굳은 결의를 말해주는듯 드넓은 포전머리마다에는 혁명의 붉은기가 새차게 나뭇가지와 허리로 부르는 힘있는 글발들이 보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투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전투과업을 받기 위해 구르뿔뿔의 농장원들이 포전머리에 모여든다. **작업반장 박충에 동무가 각 분조에서 수행하여야 할 하루전투임을 하달한다. 《알았습니까.》** 분조장들의 힘찬 대답이 진아에 울려 퍼진다. **부락당서서 정경동동 무가 대오앞에 나선다. 《모내기전에 앞서 항일빨**

색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하자

고 결심한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작업반장 박충에 동무가 작업반에 담겨져있는 기본사상과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말하면서 항일혁명선명들이 높이 발양한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당면한 모내기전투의 실천에서 적극 구현할 결의를 다진다. 뒤이어 농장원들이 저저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 토론에 참가한다. **당서포비서 최경일동무는 말한다. 《밀뿔속에서 병기장을 꾸러놓고 작란을 맡으면 항일혁명선명들의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불멸의 혁명정신입니다.》** 그는 분조에서 제시된 전투과업수행에 언제나 앞장서며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이어 4분조장 정성남동무의 목소리가 울린다. **《항일혁명선명들은 그야말로 도끼와 망치, 집게와 줄잡같은 도구를 가지고 나무대목도 만들고 흥의 부속품도 자재로 수리하거나 만들어 전투승리에 이바지하였습니까.》** 정발도 상상은 못할 일입니다. 저는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전투를 당한 혁명의 지천로까지 당고 당고 자제의 힘으로 제철에 질적

모내기전투장에서

로 끝낼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난 모운반공은 항일혁명선명들이 재봉기바늘을 자제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사명관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모내기전투에서 모운반은 조금도 걱정말라고 한다. 선동원의 토론도 농장원들의 가슴을 높여주었다.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을 계속 하면서 호소하는 부락당서서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친다. 《우리는 항일혁명선명들이 높이 발양한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어떤 일이 있어도 작업반자제의 힘으로 올해의 모내기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합시다!》** 그에 호응하는 농장원들의 화답소리가 농장벌을 들었다놓는다. **농장원들이 모내기전투장에 뛰어들어 자기 위치를 차지한다. 포전방중기에서 혁명기가 그 높이 울려 퍼진다. 트락토르, 모내는 기계들이 포전을 분주히 오간다. 드넓은 포전에 푸른 주단이 깔없이 펼쳐진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을 그대로 말 해주듯이. **본사기자 최 시 흥****

신천광산에 가면

신천광산에 가면 신천광산의 땀나뭇잎과 특색있게 꾸러진 양묘장을 볼 수 있다. 이곳 일꾼들과 당원들, 노동자들의 애국의 마음이 그대로 어렴없는 귀중한 재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땀나뭇잎에 펼쳐진 땀나뭇잎, 여기에는 당원들과 노동자들을 푸른 숲의 참된 주인들로 키우기 위하여 훌륭한 《밀거름》이 되어온 초급당비서 박근식 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의 숨은 노력이 진하게 숨배어있다.

땀나뭇잎을 조성할 때였다. **이슬녘에 일꾼들과 함께 마산에 돌아본던 초급당일꾼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방금 심어놓은 나무들의 간격이 일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스쳐보낼수 없는 일이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자기****

가 나서자만 고향의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를 아끼고 사랑하면서부터 자라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와 결심으로 굳혀지게 된다. **그날밤 초급당비서는 일꾼들**

의 자책감에 휩싸여있는 길은 자책감에 휩싸여있는 길에서 초급당일꾼은 줄자를 나누어주며 사람들의 눈길이 덜 미치지 못하라고 하여 나무를 망랑 심어서는 안된다고, 한 그루한 그루에 깨끗한 마음으로 조국을 만들려는 로동계급의 량심이 비끼게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지난 시기**

에 있었던 일들이 어제된듯 떠올랐다. 예순이 훨씬 지난 나이에 남보다 큰 거름지계를 짓고 로동자들과 똑같이 하루에도 수십번 비를 맞을 오르내리며 지금의 힘들어도 앞으로 덕을 볼 때가 있다고 고무해 주던 초급당일꾼, 새로 꾸민 양묘장에 심을 아카시나무

풍성한 열매를 가꾸어가는 밀거름

신천광산 초급당위원회 일꾼들의 사업에서

종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판에 제일먼저 오르기도 하고 어느 한 양묘장에 속해나무모가 있는지를 지켜야 할 잔치를 보여 주는 걸그림도 준비하였다. **다음날 동녘하늘이 희뽀뽀 밝아올 무렵 일꾼들과 함께 마산에 올라간 초급당비서는 삼**

을 두 개를 파고 거름을 뚝뚝 다스 나무모들을 다시 심기 시작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동자들이 달려왔다. **깊은 자책감에 휩싸여있는**

길에서 초급당일꾼은 줄자를 나누어주며 사람들의 눈길이 덜 미치지 못하라고 하여 나무를 망랑 심어서는 안된다고, 한 그루한 그루에 깨끗한 마음으로 조국을 만들려는 로동계급의 량심이 비끼게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지난 시기**

에 있었던 일들이 어제된듯 떠올랐다. 예순이 훨씬 지난 나이에 남보다 큰 거름지계를 짓고 로동자들과 똑같이 하루에도 수십번 비를 맞을 오르내리며 지금의 힘들어도 앞으로 덕을 볼 때가 있다고 고무해 주던 초급당일꾼, 새로 꾸민 양묘장에 심을 아카시나무

그날의 풍금소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5.25교시에서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하면 당과 수령이 내놓은 정책들을 심장같이 받들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으며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본사기자 손영희**

분덕군 장산리당위원회 사업에서

부르던 필승의 노래와 불굴의 투지가 담겨진 신념과 불굴의 오늘이 진군가로 울려 퍼지게 하는 과정으로 승화시켜 진행할 결심을 굳혀왔다. 그의 결심을 리당일꾼들이 적극 지지해 나갔다. **이에 따라 리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든 민주선진성에 대한 참관을 당조직별로 조직하였다. 어머니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노래선들이 울려 퍼지던 풍금이며 전시시랑풍산을 위해 헌신 분투하자고 웨치던 당원들의 열기면 토론이 그대로 울려 오는데 같은 색깔은 당서포비서 최경일동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당원들은 전하의 나날**

을 통해 모내기전투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할 결심을 결의하였다. **충실성교양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있는 리당위원회의 사업에 의하여 오늘에 울려던 풍금소리는 전하의 진군가로 울려 퍼지면서 모내기전투로 들끓고 혁명의 기상이 새차게 맥박치게 하였다. **본사기자 김 종 석**

오늘의 진군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적의 강령관이 실감의 박동음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내어 도적인 보여주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실천과정을 통하여 혁명사적**

자를 통한 충실성교양의 실효가 커다란것을 깊이 인식한 리당위원회일꾼들은 열마천 모내기전투에 들어가서 전제 사연 깊은 민주선진성에 대한 참관을 다시 조직하였다. **전문의 참관과 다르게 이번에는 사적**

지참관과 이어 불꽃이 터져나갈 것 같은 나날 어머니수령님을 만나뵈는 영광을 지닌 로당원 리용화녀성과의 이야기모임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리용화녀성의 감동받은 이야기**

를 통해 충실성과 농장원들은 올해 모내기전투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할 결심을 결의하였다. **충실성교양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있는 리당위원회의 사업에 의하여 오늘에 울려던 풍금소리는 전하의 진군가로 울려 퍼지면서 모내기전투로 들끓고 혁명의 기상이 새차게 맥박치게 하였다. **본사기자 김 종 석**

역적패당은 반공화국모략극을 날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대담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림방이 내외에 천명된 후 궁지에 빠지게 된 리명박악도는 5월 24일 제논이 직접 나서서 그 무슨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리명박악도가 발표한 《대국민담화》는**

제논이 발표고나서서 꾸민 《날조극》, 《모략극》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투리이다. **리명박악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뢰군부정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

의 사투리 연극이며 통족암살에 환장이 된 반공화국대결책동자의 꾀변이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선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괴하는 투대형범죄이다. **우리는 이미 리명박악도가 상정한**

지령을 받고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둘러 통족을 음해하기 위한 《날조극》, 《모략극》을 꾸민다는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도가 떠벌린 《대국민**

담화》는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꾸민 《날조극》, 《모략극》이 드러날까봐 쓰고있는 권모수수에 지나지 않는다. **파악적이며 객관적인 《조각과》라고**

크게 광고하면서 우리 국방위원회의 결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리용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역적패당은 위가 쟁기치 않는다면 마땅**

히 우리 결단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역적패당은 우리를 반대하여 서투른 《날조극》, 《모략극》을 꾸민 책임에서 절**

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생명수 넘쳐 흘러들기까지

대동군 장산협동농장에서

군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농장일꾼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논의가 거듭되는 속에 자연호흡식**

물길을 확장하려는 인이 제기되었다. **방도는 그 결박에 없었다. 그런데**

이때 판리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려다졌다. **《농사의 주인은 우리들 자신**

입니다. 지난해 자체의 힘으로 자연호흡식물길공사에 한것처럼 본래에게 해봅시다. **그 말을 들은 일꾼들은 지난**

해 자연호흡식물길공사를 하던 때를 되돌아보았다. 그때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에 어떻게 하나 중요한 가솔을 안아오자

앞 세우자

씨 레 치 기 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를 잘 짓자면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기에 질적으로 하자면 씨레치를 앞세워야 한다. **씨레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모내기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농업부서 일꾼들은 씨레치를**

잡하는것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할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힘을 넣어야 한다. **씨레는 너무 빨리 쳐도 안되고**

늦게 쳐도 안된다. 포전들의 특성이 하나같이 않은것만큼 그에 맞게 씨레치는 기간을

씨 레 치 기 를

앞 세우자

수령이 잘 보장되게 씨레치를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한다. **앞선 씨레치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야 한다. 씨레치기에 서도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때 그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할수 있다. **마른씨레치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마른씨레치기방법을 받아들일 때 물씨레치를 할 때보다 거름 소비량을 줄일수 있다. **또한 토양의 성질이 좋아지면 비료를**

다음 모살이 잘되고 비가 잘 자라 소출을 높일수 있다. **각지 농장원들은 자기 지**

방의 특성과 토양조건에 맞게 트락토르는 물론 트랙터를 적극 배합하여 모내기에 씨레치기를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트락토**

앞 세우자

씨 레 치 기 를

리명박악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뢰군부정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

의 사투리 연극이며 통족암살에 환장이 된 반공화국대결책동자의 꾀변이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선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괴하는 투대형범죄이다. **우리는 이미 리명박악도가 상정한**

지령을 받고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둘러 통족을 음해하기 위한 《날조극》, 《모략극》을 꾸민다는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도가 떠벌린 《대국민**

담화》는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앞 세우자

씨 레 치 기 를

리명박악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뢰군부정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

의 사투리 연극이며 통족암살에 환장이 된 반공화국대결책동자의 꾀변이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선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괴하는 투대형범죄이다. **우리는 이미 리명박악도가 상정한**

지령을 받고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둘러 통족을 음해하기 위한 《날조극》, 《모략극》을 꾸민다는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도가 떠벌린 《대국민**

담화》는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최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역적패당의 대북심리전체제개음직임이 눈에 띄이게 나타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선중부 피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 회병초소에 반공화국심리전구조가 출현하였으며 심리전방총체계를 위하여 확정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이것은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리명박악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뢰군부정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

의 사투리 연극이며 통족암살에 환장이 된 반공화국대결책동자의 꾀변이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최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역적패당의 대북심리전체제개음직임이 눈에 띄이게 나타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선중부 피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 회병초소에 반공화국심리전구조가 출현하였으며 심리전방총체계를 위하여 확정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이것은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리명박악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뢰군부정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

의 사투리 연극이며 통족암살에 환장이 된 반공화국대결책동자의 꾀변이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최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역적패당의 대북심리전체제개음직임이 눈에 띄이게 나타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선중부 피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 회병초소에 반공화국심리전구조가 출현하였으며 심리전방총체계를 위하여 확정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이것은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리명박악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뢰군부정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

의 사투리 연극이며 통족암살에 환장이 된 반공화국대결책동자의 꾀변이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최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역적패당의 대북심리전체제개음직임이 눈에 띄이게 나타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선중부 피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 회병초소에 반공화국심리전구조가 출현하였으며 심리전방총체계를 위하여 확정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이것은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리명박악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뢰군부정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

의 사투리 연극이며 통족암살에 환장이 된 반공화국대결책동자의 꾀변이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최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역적패당의 대북심리전체제개음직임이 눈에 띄이게 나타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선중부 피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 회병초소에 반공화국심리전구조가 출현하였으며 심리전방총체계를 위하여 확정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이것은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리명박악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뢰군부정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

의 사투리 연극이며 통족암살에 환장이 된 반공화국대결책동자의 꾀변이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최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역적패당의 대북심리전체제개음직임이 눈에 띄이게 나타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선중부 피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 회병초소에 반공화국심리전구조가 출현하였으며 심리전방총체계를 위하여 확정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이것은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리명박악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뢰군부정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

의 사투리 연극이며 통족암살에 환장이 된 반공화국대결책동자의 꾀변이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최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역적패당의 대북심리전체제개음직임이 눈에 띄이게 나타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선중부 피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 회병초소에 반공화국심리전구조가 출현하였으며 심리전방총체계를 위하여 확정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이것은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리명박악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뢰군부정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

의 사투리 연극이며 통족암살에 환장이 된 반공화국대결책동자의 꾀변이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최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역적패당의 대북심리전체제개음직임이 눈에 띄이게 나타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선중부 피뢰 3보병사단 비무장지대 330 회병초소에 반공화국심리전구조가 출현하였으며 심리전방총체계를 위하여 확정까지 새로 설치할 움직임이 보이고있다. **이것은 북남군사적합의에 대한**

리명박악도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뢰군부정자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대북심리전

의 사투리 연극이며 통족암살에 환장이 된 반공화국대결책동자의 꾀변이다. **이것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시 초 무릉도원에 사과꽃바다 설레여라

그리움의 꽃바다

그윽한 꽃향기
구름같은 사과꽃바다
대동강물결위에 비껴흐르니
꽃피는 계절에 다시 오마 하시던
우리 장군님생각

한없는 그리움속에
사과꽃 만발한 포진을 지나
설레이며 따라서는 복숭아꽃
추리꽃...
걸어도걸어도 끝없는 이 파원

사랑하는 인민에게 천만복을
주시려는
장군님마음이
아지마다 그루마다
억만송이 꽃바다로 설레이는
끝없는 사랑의 세계

달리는 전선길에 봄비가 내리듯
파원의 나무들이 잘 자라겠다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바람불려 바람불려
파원의 사계절을 다 안고사신
장군님

한평기 꽃잎에도
이 봄을 위해 바쳐진 낮과 밤
그 천만로고와 어려와
꽃들은 피어 웃어도

소원안고 솟은 마을

꽃피는 봄은
파원동네에 먼저 깃들었다는가
뜨락엔 아지랑이 감돌고
집집의 창너머
사과꽃향기 넘치는 마을

꽃가지 드리운 사과나무아래엔
가시런히 놓인 꿀벌통들
송이송이 꽃을 찾아 날아오는
꿀벌들의 정겨운 날음소리

이 봄, 이 계절엔
더더욱 간절해지는 소원
무릉도원 이 마을에 이사짐을
가지고와
살고싶다하시던 우리 장군님
꽃속에 향기속에 모시고싶어...
눈내리는 겨울이면 눈보라를 헤쳐

박 정 예

뜨거움에 젖어드는 이 마을아
송이송이 천만송이 가슴에 다
안으면
무한한 그 사랑의 세계를 다 알수
있을까
이 파원 저 한끝까지 다 걸으면
그 천신의 자욱자욱 다 안아볼수
있을까

그 사랑을 천만가닥 햇빛으로
안고
피어나는 꽃들의 속삭임소리
이랑이랑 꽃피는 이 파원으로
인민의 기쁨을 안고 행복을 안고
오고 또 오시는 장군님의 발걸음
소리

오시셨으면
초겨울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오시었던 우리 장군님
꽃피는 이 봄날 다시 오시어
꽃속에 향기속에
기쁨가득 거니셨으면...

아, 이 봄을 제일로 사랑하신 분
이 봄을 누구보다 기다리신 분
장군님 다시 모실 그날을 그려
꽃들이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더 활짝 피어오라

류 동 호

피약벌 뜨거운 여름이면 불벌을
헤쳐
끝없는 강행군의 한평생에
언제 한번 따스한 아래목이 있었
던가
언제 한번 그늘 밑이 있었던가

꽃피는 행복의 이 뜨락울
온 나라 거리와 마을들에 다 이어
주시려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펼쳐주시려
강행군의 려정에
인민의 념원을 더 무겁게 떠메시고
오늘도 이오시는 전선길

한평생 야전차를 짐으로 삼고
세월의 눈바람 헤쳐치는 우리
장군님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행복의 푸른 추녀 꽃속에 묻힌 이
선경마을에서
겹쌓인 피로를 다 푸시었으면

봄이면 꽃향기
가을이면 파일향기
천만복 천만송이 이 꽃피고 무르익
어디
그 하나의 소원만은

이 봄을 실고 가다오

희한한 사과꽃풍경
하늘땅에 넘치는 천만꽃향기
원홍땅이 생겨 처음보는
새 파원의 모습이 물결위에 비쳤
구나

실고 가다오 대동강아
수령님 한평생 념원하신
이 봄이 봄이
저 멀리 금수산기슭에서
저 멀리 금수산기슭으로

실고 가다오
이 봄을 실고 가다오
네 물결 금수산기슭에 이르거든
잠시 흐름을 멈추고
무릉도원 꽃향기를 삼가 드려다오

얼마나 기뻐하시랴
천만꽃을 들어 천만꽃을 들어
우리 장군님 꽃피우신 이 봄
우리 수령님 안아보신다면
그 얼마나 만족하시랴

김 윤 결

얼마나 더 넓어졌느냐
줄을 맞춰 뿔을 맞춰
펼쳐진 파원을 바라보시며
마치 사연을 기다리는 열병태도
같다고
우리 장군님 그리도 기뻐하신 청
춘파원이여

얼마나 더 아름다워졌느냐
끝간데 없이 만발한 사과꽃
바다
간추위에 깊이 언 땅을 깨내며
눈보라속에 날리던 병사들의
그 웃음이
아지마다 떨기떨기 꽃으로 피어
나고

오늘도 풀지 못한 념원으로 안고
밤깊도록 잠드는 원홍마을

이 나라 천만가닥 집집의 이사짐을
강성대국 큰집에 다 옮겨주는
그날이면
아, 우리 어버이
하루라도 신들매를 푸실수 있을까
강행군의 그 려장을 푸실수 있을까

주 광 일

파수의 나라로 꽃피우시려
협한평 협한산발 다 넘어시고
인민에게 파일을 마음껏 먹이시려
걸어간 길을 다 헤치신
우리 수령님

파일을 손에 쥐고 뛰노는
아이들을 보는것이 락이라시며
이 봄이 파원의 포도원을 가꾸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
세월이 가도 못잊어

수령님의 그 사랑으로
장군님 펼쳐주신 새 파원
수령님의 그 손길로
이 땅위에 안아오신 선군11경
더더욱 그리움에 젖어드는
내 마을

실고 가다오
수령님의 평생념원이 꽃피던
강성대국 청춘파원의 이 봄을
태양의 성지 금수산기슭으로
오, 대동강아 실고 가다오

병사들의 그 손길이
매안인 찬서리에 열매들이 상할
새라
우등불을 지피며 지새우던 그 긴긴
밤들이

장막과 전사가 따로 있었던가
이 땅에 흘린 땀, 바진 그 지성에
일이 돌고 꽃이 핀 사과나무
결사관철의 그 붉은 피가
즐거우마 아지마다 단춍이 되어
흐르는 이 파원

최고사령관님의 명령이라

최고사령관님의 명령이라
최고사령관님을 펼칠 날이면
그 모습으로 뿔을 맞추고 줄을
맞춘
천그루 만그루 사과나무, 사과
나무
병사들의 그 위훈으로

해저무는줄 몰랐다네

심을 때는
사과나무를 심을 때에는
손자녀처럼 이 그 덕을 보리라
생각했던
마을의 좌상로인
가을날에 그만사 어려들

봄에 심어 가을에 열매를 따다니
변이리도 이런 변은 난생처음
로인은 눈길도 밟길도 허둥지둥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포전에서 저 포원으로

박 경 심

나무마다 탐스런 사과달들
한가지에도 우리 집 식구보다
많이 달렸으니
해마다 더 많이 무르익겠지
희한한 사과풍경 마주하고
숙구도 많았다는 좌상로인

알았이 무르익은 행복을 따들이는
오랜 세월 인간이 념원해온
그 꿈 그 공상보다 더 신비로운 락원
금수산 내 나라에
선군시대 무릉도원으로 태어난
원홍마을이여

무릉도원에 대한 생각

오랜 세월 인간이 념원해온
그 꿈 그 공상보다 더 신비로운 락원
금수산 내 나라에
선군시대 무릉도원으로 태어난
원홍마을이여

넓어지고 더 넓어진 청춘파원

장군님 다시 모실
영광의 그 시각을 기다려
포다시 열병광장에 정렬한
내부군병사들의 열병태도같아라

조진민내무군 열병태도

오, 총대로 지킨 땅에서 꽃피운 봄
최고사령관님을 펼칠 날이면
조국 땅 한끝까지 무릉도원
펼쳐갈
조선인민내무군 열병태도
장군님의 사열을 기다리다!
그이의 새 전투명령을 기다리다!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박 경 심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원리 또 천리 봄이랑우에
한껏 만발한 꽃바다우에
이 세상 가장 화창한 봄이 웃고있
어라
이 세상 가장 풍요한 가을이 약속
되어있어라

정녕 이 무릉도원은
우리 인민을 제일 잘 사는 인민으
로 내세우시려
수령님 걸어서온 길을 이어
장군님 걸고 또 걸으신 교년의
천만리
그 자욱자욱우에 현실로 꽃피는
사회주의리상향

동해의 기슭이라 서해의 기슭이라
저 멀리 칠명야에 전연마을 파원
에도
하얗게 피어난 사과꽃바다
오목의 향기에 백과의 향기를
더해
더 좋은 인민의 레일을 안겨주시려
그이 끝없이 넓혀가시는 선군의
무릉도원

봄이면 꽃향기
가을이면 사과향기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질 인민의
행복 안으시며
환히 웃으시던 장군님의 그 미소
억만가닥 해살로 비껴흘러
더더욱 아름다운 파원, 절경의 꽃바
다여

그 봄에서 태어나고 솟아오르는
선경마을, 무릉도원을 안아볼수록
뜨거워지는 하나의 생각
꽃속에 열매속에
천만복이 무르익어 무릉도원이던가

장군님 가꿔가시는 무릉도원이
인민의 행복 꽃피는 세상이라면
인민이 소원하는 무릉도원은
장군님의 건강념원 그 미소가
햇빛처럼 차넘치는 이 강산

그것이 아, 그것이
더 바랄것없는 우리 인민의
리상향
장군님의 그 미소로 밝고 밝은
이 땅이
김일성선군의 만복의 보금자리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고싶은
사회주의무릉도원이여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
성 대변인은 뉴욕에서 진행중인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집토대
회의와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
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일부 적대세력들이 회의장안
에서 우리의 조약탈퇴를 시비하면
서 조선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이 핵무기를 포
기하고 조약에 복귀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을 내세우고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국가
의 최고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는 미국이 조약을 악용하
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
하면서 핵위협을 더욱 로발화해
비상상태에 대처하여 1993년
에 조약 제10조에 따르는 탈
퇴절차를 시작하였다.

조약에 의하면 조약탈퇴에 대
하여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
면 탈퇴효력이 발생되게 되어있
지만 우리는 조약에 명기된 탈
퇴공정을 모두 밟으면서 10년

이 지난 2003년에야 조약탈
퇴효력을 최종적으로 발생시켰
다. 국가의 최고이익이 위태로
게 되었을 때에도 그만큼 참고
참으면서 조약탈퇴문제를 심중
하게 처리하였던것이다.

조약탈퇴후에도 가중되는 미
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
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모든것을 투명
성있게 공개하면서 정정당당하
게 핵무기를 만들었다. 결국 미
국이 우리를 조약에서 탈퇴하도
록 떠밀었고 조약에는 핵보유국
으로까지 만들어준셈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핵무기
를 보유함에 대하여 시비하는
것해듯이 일부 표명되고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조약밖에 있을
나라로서 그에 개의치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그
어떤 의무에도 구속되어있지 않
으며 국가의 최고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만큼 핵억제력을 계속
확대강화해나갈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서 핵보유

국으로 인정받을것을 바라지 않
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
다. 우리의 핵무기로 나라의 자
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
게 수호할수 있게 되었다는 긍
지와 자부심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이 조약에서 탈퇴하
기 전에도 조약을 위반한적이
없다. 지금까지 조약위반행위
는 오직 핵무기보유국들의 핵
군축의무가 규제된 제6조에서
만 발생하였다.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지 40년이 되었지만 그
동안에 지구상의 핵무기가
철폐되지는커녕 그 파괴력이
월천적 늘어났다.

핵무기보유국의 존재를 인정
하고있는 이 조약은 예초에 무기
한 연장되어야 할 조약이 아니
었다. 세계적인 핵무기철폐조
약에 바뀌어야 하였다. 핵무기를
제거할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핵
무기전파방지조약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조약이
없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도록
핵군축을 다그쳐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능률높은 다기능벼모내는기계 개발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에서 긴장한 로력문
제를 풀고 농민들을 힘트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도,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농업을 급진화,
현대화하기 위해서도 농촌
경리의 종합기계화를 실
현하여야 합니다.》

농업기계화연구소의 과학자
들이 능률높은 다기능벼모내는
기계를 개발하였다.
이 다기능벼모내는기계는
1대작종벼모와 속성모, 일
반방상모, 큰모 등 부리를
셋어 눈에 내는 모와 부리를
셋지 않고 그대로 내는 영양
성모와 같은 여러가지 종
류의 모를 다 낼수 있는 기
계이다.

최근년간 현장들에 앞선 영
농방법과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일반방상모 하나에

만 의존하던 모내기기술도 다
양해졌으며 그에 맞게 여러가
지 기능을 가진 모내는기계에
대한 수요가 절실하게 제기되
었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여러
단위들에 대한 로해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포착하고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
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 과정에 문정민동무를
비롯한 모내는기계연구집단
의 과학자들은 일반방상모
기에만 리용하던 종전의 모
내는기계를 부분적으로 개조
하고 여기에 필요한 보조장
치들을 새로 개발도입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확상을 하였다.
과학자들은 이에 따라 모종
류에 따라 포기당 대수를 임의
로 보장할수 있는 여러가지 모
의 구조와 설계지표를 선정
하였다.

또한 포기당 대수의 분포

범위를 종전보다 거의 절반
으로 줄여 자기 대수를 고르
롭게 보장할수 있고 모가 받
는 기계적손상을 적게 할수
있는 벼모분구조도 새롭게
확정하였다.

포기당 대수가 적어질수록
빈포기가 많이 생기던 종전
모내는기계의 결함을 극복하
고 모공급밀도를 농중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위상조절식모
공급기의 설계지표를 선정하
였다.

한편 모내는 장치의 렬사이
거리를 종전보다 약간 넓히고
소식배를 많이 하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평당 포기수를 정
확히 보장하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도 원만히 해결
하였다.

현실적조건을 올해 반영한
이 다기능벼모내는기계는 올해
에 진행된 중앙과학기술축전
에서 1등으로 당선되였다.

본사기자 려 명 희

확고한 주견과 방법론을 틀어쥐고

두벌농사를 잘하면 소출이
크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
지만 그만큼 많은 품을 들여야
한다.

연안군 읍협동농장에서 이 문
제를 잘 풀었다. 10년째 좋은 결
실을 볼수 있었다. 그 비결은 이곳
일군들이 두벌농사에 대한 과학
기술적인 주견과 방법론을 가지
고 농장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
는 영농공정을 확립한데 있다.
예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파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
건과 때 지방의 특성에 맞
는 과학적인 영농기술, 영농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두벌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알뜰하고
견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농장의 관리일군들은 뒤
니워나도 과학기술에 의거해
야 두벌농사를 보다 철학게 잘
지을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

과학적인 리치를 따져가면서
모든 영농공정에 대한 기술관리
를 짜고들기만 하면 두벌농사가
결코 힘들지 않다는것이다. 들
인 품에 비하여 그 보람이 풀
이나 큰 까닭인것 같다.

두벌농사면적을 계속 늘이
어 총경지면적의 근 절반에 달하
는 논밭에서 두벌농사를 안전
하게 하고있는 이곳 농장에서
는 알록 대 알록으로 높은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의 앞장에 선 연안군 읍협동농장 일군들의 경험

수확을 거두고있다.
두벌농사에서 선지적인 문제
는 앞뒤그루작물선정파 그에
따르는 품종선정이다. 특히 앞
그루로 어떤 작물을 심는가 하
는것은 두벌농사에서 관건적인
문제이다.

이곳 농장에서는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두벌농사의 앞그루로
밀, 보리, 감자를 심고있는데
특히 감자는 가장 확실성있는
는앞그루작물로 인정되고 많은
면적에서 재배하고있어 그 덕
을 토틀히 보고있다.

농장관리위원장 정연옥동무
는 《최근년간 우리의 농업과
학자들이 참으로 많은 일을 하
였다. 그들의 연구성과에 의하
여 우리 나라 그 어디서나 두
벌농사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여러가지 다수확농법들이 마
련되었다. 앞그루농사에 좋은
밀, 보리, 감자종자들도 많고
뒤그루로 심을수 있는 벼, 강
냉이, 콩 등의 우량한 품종들
도 많다. 문제는 자기 고장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종자를 어
떻게 골라심어 가꾸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종
자란 생육기일이 상대적으로
짧고 수확도가 높은 품종을 이
르는것이다.
이곳 농장의 크지 않은 시험
포전에서는 두벌농사에 적합한

여러가지 앞뒤그루작물들을 심
어가고있다. 같은 앞그루작물
이라도 서로 다른 품종들을 심
고 대비시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량한 품종종배에 대한 과학적
인 시비체계를 완성하는 한편
농장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품종
을 확실성있게 선별한다.

10년전만 하여도 논벼농사
대부분이 이 농장에서 는앞그
루로 감자를 심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기고있다. 하
지만 지금은 해마다 는앞그루
로 감자를 심어 높은 소출을
내고있다. 정연옥 동무가
생산량을 알뜰으로 환산하면
5t이상의 높은 수확을 거두고
있는것으로 된다.

그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
로 생육기일이 짧은 다수확품
종을 정확히 파악한데 있다.
두벌농사는 한포전에서 일곱
을 두번 수확해야 하는 복잡한
영농공정이다. 때문에 두벌농
사를 안전하게 짓자면 그에 알
맞는 포진을 잘 고르는 문제가
중요하다. 다시말하여 적지선
택이다.
여기서도 과학적인 라산과
기술적인 담보가 안받침되어야
한다.

두벌농사면적의 90%이상이
는로 되여있는 이곳 농장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다. 지난
시기 는앞그루로 감자를 심어

을수 없다고 여기게 된것도 결
국은 밭에 비해 는에는 물기
항시적으로 많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곳 농장의 일군들은
적지문제를 두벌농사의 과학
기술적요구와 특성에 맞게 혁신적
으로 해결하였다.

물베기에도 좋고 물대기에도
유리한 장소들을 골라 두벌농
사포전을 농장적으로 집중매치
한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
그루농사를 위해서는 물을 잘
뿌를수 있고 그것을 수확하면
서 편이 뒤그루로 심는 키 큰
모내기때에는 양구기를 쓰지
않고도 물을 충분히 낼수 있는
지대적으로 유리한 포진들을
선정하였다.

두벌농사포전을 농장적으로
한곳에 집중매치하는것도 중요
하였다. 그때야 기술지도와 로
력리용의 효과성을 높이고 작업
반, 분조들사이의 경쟁열의를
보다 고조시킬수 있었던것이다.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벼모
내기포전을 농장적으로 집중매치
고강하게 진행해야 하는 두벌농
사에서는 더욱이 그러하였다.

이곳 농장의 경험을 보면 두
벌농사포전에 대한 땅다루
기에서 높은 지력을 계속 보장
하는것은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한 기본조건인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땅에서 한
해에 두벌농사를 하면 지력이
떨어져 단발농사보다 많은 거
름이 들어야 한다고 한다. 틀
리지는 말이다.
하지만 이곳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경험에 의하면 두
벌농사포전의 지력보장문제를
바로 두벌농사과정자체가 해결
해준다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그루작물
을 수확하고 는에 남는 그 즐
기와 일사귀를 그대로 갈아엎
으면 더없이 좋은 토틀이 되는
데 그 럼이 좋은 18t이나
된다것이다.

앞그루밀, 보리도 마찬가지로
다. 밀, 보리를 가을할 때 그루
터기를 놓는것은 높이고 남기고
인차 높은 걸면 그것 역시 정보
당 15t의 토틀을 내것으로 된
다는것이다.

이 주장의 과학성은 해마다
는같이하면서 하면 땅에 기
름기가 많이지는데 확인되 일
린다는 트랙터트랙터들의 말
로만 설명되는것이 아니다.
단발농사를 하는 포진보다 거
름을 별로 더 내지 않았는데도
두벌농사에서 계속 높은소출을
내고있는 엄연한 사실이 증명해
주지 않는다.

《당에서 하라는 두벌농사야
말도 평되고 알리고 등지러야 불
태는 격》이라고 하는 이곳 관
리위원장의 실농군대사관 밭
교 유언지이다.
이렇게 높고보면 두벌농사는
어떤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신비
한것도 힘든것도 없는 명백한
농법이며 어디서나 능히 받아들
여 알뜰문제를 간단하게 빨리
풀수 있는 묘책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당의 두벌농사방침
관철을 대하는 일군들의 관점
과 립장, 사업기풍과 일본새이
다. 과학적인 영농기술과 새로
운 영농방법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연안군 읍협동농장 일군들
의 경험은 그것을 좋은 결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연 석



꽃향기넘치는 가정의 정서

모란봉구역 흥부동
18인민반 점철동무의
가정에 올해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 류다른
정서를 안겨준다.

우리는 더 잘살게 하
려고 끊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에 이어가시는 정애하는
장군님께 감사의 큰절을 드
고싶은 인민의 마음담아 꽃들
도 송이송이 피게 되였는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리키
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신심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위생선전사업을 활발히

중국어 가능한 조선중앙 방송위원회대표단 출발

중국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
평양방송개발기구 제7차회의
에 참가할 황영보 제1부위원
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
방송위원회대표단이 24일 평
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춘도 조선중앙방
송위원회 부위원장과 리학재 주
조선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
사과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어 가능한 조선중앙 방송위원회대표단 출발

중국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
평양방송개발기구 제7차회의
에 참가할 황영보 제1부위원
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
방송위원회대표단이 24일 평
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춘도 조선중앙방
송위원회 부위원장과 리학재 주
조선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
사과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어 가능한 조선중앙 방송위원회대표단 출발

중국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
평양방송개발기구 제7차회의
에 참가할 황영보 제1부위원
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
방송위원회대표단이 24일 평
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춘도 조선중앙방
송위원회 부위원장과 리학재 주
조선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
사과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어 가능한 조선중앙 방송위원회대표단 출발

중국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
평양방송개발기구 제7차회의
에 참가할 황영보 제1부위원
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
방송위원회대표단이 24일 평
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춘도 조선중앙방
송위원회 부위원장과 리학재 주
조선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
사과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어 가능한 조선중앙 방송위원회대표단 출발

중국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
평양방송개발기구 제7차회의
에 참가할 황영보 제1부위원
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
방송위원회대표단이 24일 평
양을 출발하였다.

애국애족의 가치따라 나아가는 총련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오늘은 총련결성 5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따라 해외교포운동의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해온 주체의 애국애족이며 그 역사는 자기 수령과 자기 조국, 자기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여온 애국총정의 역사로 빛나고있다.

주체의 향로우에 애국의 뜻을 올린 때로부터 지난 55년세월 땀없는 시련과 역경을 헤치며 불태운 애국애족의 영예떨치고있는 총련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다. 뜻깊은 총련결성기념일을 맞아 조국인민들은 자본주의의역망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기 수령, 자기 조국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투철한 믿음, 뜨거운 의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애국애족의 길을 뜻없이 이어가고있는 전체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사를 보낸다. **본사기자 허영민**

단결로 백배해진 대오

조직을 자기 수령의 사상과 로선, 영도에 충실하며 사회주의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공화국의 참다운 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킨것, 바로 이것이 총련이 지난 55년간 이룩한 수많은 성과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중요한 업적이다. 창립 조국에는 곧 자기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서 표현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이 고귀한 전통은 재일조선인운동이 주체의 뜻을 올린 때에 뿌리내렸으며 애국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나날에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드높이 솟아오르는 신념으로 간직되고 있었다.

총련은 결성된 첫날부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반에 걸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다. 총련은 각급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적, 영도적 계통을 세우는것을 조직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위대성을 실현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왔다. 그 나날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으며 내외

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하고 수령에 애국투쟁의 고귀한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총련조직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그를 어떻게 하나 말할하고 재일동포들을 우리 공화국의 품에서 떼어내려는 일본반동들의 모략과 탐탁책은 이후 형언할수 없이 악랄하였다. 하지만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은 불굴의 신념과 애국충정을 안고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내외반동들의 악랄하고 끈질긴 반총련악살책동을 파김치 물리치고 조직을 굳건히 사수하였으며 더욱 강화하였다.

애국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손길

자기들의 운명과 생활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총련결성기념일을 맞이한 지금 전체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호모의 정에 넘쳐있다.

유복에 그르며서 한자두자 조항을 새겨넣으시었던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조국 해방전 이듬해에는 《재일 100만동포들에게》라는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어 재일동포들에게 재생의 열정과 무한한 힘을 북돋아주시었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수호를 승리로 이끄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강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는 장군님의 강령적로작들과 가르치실들은 총련애국위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준 백과사전적인 명백의 지침이다.

자기의 성격에 맞는 로선을 세우지 못한것으로 하여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재일조선인운동은 애국의 계두에 올려 세워주시는분도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해외교포운동은 비록 이국땅에서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참감해 이바지하는 민족애국운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로선지침 방향, 그이께서 조국이 어려운 시련을 겪던 중엽한 전후의 나날에 밝혀주시어 위대한 강령은 재일조선인운동에 위가서 구원해준 위대한 무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영도밑에 주체 44 (1955)년 5월 25일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없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담케 복무하는 애국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해방신문》 《조선신보》 《조선》은 《재일본조선인총련회》(총련)는 드디어 해산도 한걸음 눈부시게 신록이 출주는 5월 25일 토크를 새출발했다. 우리들은 이제야 진실로 전체 3천만 조선인민들이 걸어가는데 승리를 찬 거창한 총로선으로 확고한 영도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 리운으로 눈물을 적신다.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여하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단체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가치밑에 재일조선인운동은 발전시켜나가는 주체적인 해외교포조직입니다.》

총련은 애국의 신념으로 굳게 뭉치고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해외교포단체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적인 재일조선인운동의 시련을 넘어주시 위대한 스승이시고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 리운으로 눈물을 적신다.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일찍이 어린시절부터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이역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의 비참한 생활을 너무도 사무치게 체휼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기에 재일동포들에 대한 그이의 관심은 참으로 각별하시었다. 할렙철전의 그 나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작성하신 때에도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마

우려 아이들의 미래, 동포사회의 존망과 관련되는 민족교육 문제에서는 그 어떤 양보나 타협도 없으셨다. 지금 재일동포들은 60여년전인 일본군정시절에 그 당시 《조선신보》 《조선》은 《재일본조선인총련회》(총련)는 드디어 해산도 한걸음 눈부시게 신록이 출주는 5월 25일 토크를 새출발했다. 우리들은 이제야 진실로 전체 3천만 조선인민들이 걸어가는데 승리를 찬 거창한 총로선으로 확고한 영도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 리운으로 눈물을 적신다.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변함 없는 생명선

민족교육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뿌리이고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총련애국위업의 생명선이다. 지난 55년간 총련은 민족교육사업발전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애국의 피를기어고 순결하게 이어왔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동포사회의 존망과 관련되는 민족교육 문제에서는 그 어떤 양보나 타협도 없으셨다. 지금 재일동포들은 60여년전인 일본군정시절에 그 당시 《조선신보》 《조선》은 《재일본조선인총련회》(총련)는 드디어 해산도 한걸음 눈부시게 신록이 출주는 5월 25일 토크를 새출발했다. 우리들은 이제야 진실로 전체 3천만 조선인민들이 걸어가는데 승리를 찬 거창한 총로선으로 확고한 영도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 리운으로 눈물을 적신다.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민족교육을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일본반동들의 민족배타적인 차별정책과 총련발상책동으로 하여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총련의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있다. 민족교육을 파탄시키고 동포사회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최근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일본반동들의 민족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재일동포들

이름만 일본당국은 고등학교 졸업대상에서 조선학교들을 배제할때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 차별한 행위에 격분한 재일동포들은 《민족교육차별정책의 철폐》, 《평등한 교육권의 쟁취》 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차별정책을 반대하며 민족교육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전개해나가고있다.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반통일역적들을 지체없이 쓸어버려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남조선피괴통일부가 세세대대 동족에 대한 적대적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범죄적인 책동에 초조하게 매여달리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5월 22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954호를 발표하였다.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정보세력의 승리를 위한 현대투쟁 선언

남조선의 《전국민주노동총합투쟁령》, 《전국농민총투쟁령》, 《전국학생총투쟁령》이 1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농민의 현대투쟁을 선언하였다. 단체들은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진보세력의

꽃피는 민족문화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파쇼폭군의 본색을 드러낸 망발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일본반동들의 민족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재일동포들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반통일역적들을 지체없이 쓸어버려야 한다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정보세력의 승리를 위한 현대투쟁 선언

총련은 애국위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심혈, 사랑과 은정은 그 얼마나 크고 뜨거웠던가. 공화국국적법을 제정공포하시어 주



일본반동들의 민족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재일동포들

북침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무분별한 망동을 준렬히 규탄한다

특대 형사 기극, 유치한 날 조 품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20일 남조선공화국은 합선침몰사건을 우리 공화국과 편박시키는 심히 모략적인 《조선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피괴당은 어디서 주어진 것인지 알수도 없는 것들을 《증거물》이라고 내놓으며 합선침몰사건의 원인이 《북의 어뢰》에 의한 중수 폭발이라는 거짓무늬를 내었다. 이것은 내외의 강한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피괴당의 이번 합선침몰사건 《조선결과》라는 것은 또다른 한 개판성이나 과학성도 없는 유치한 것이어서 사실 론의 할 대상이 못된다. 하지만 피괴들이 그 《조선결과》라는 것을 내놓고 여론을 오도하며 반공화국대결전쟁방기를 부리고있는 조건에서 그 모략적정체를 까밝히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 조사는 합선침몰사건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피괴들이 나서서 벌려놓은 것이다. 그러자다 이번엔 《조선결과》라는 것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피괴당은 합선침몰사건이 터지자 아무런 물증도 없이 다짜고짜 그것을 우리와 편박시켜 《북개입설》을 공공연히 제창해나갔다. 그리고 저들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여

러 나라의 전문가들까지 끌어들이 사건조사하는데 그 어떤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모 시름을 썼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사건을 근거도 없이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한 모략적인 결론에 맞추어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렇게 조작된 《조선결과》가 밝은 세상에 통할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조선각계에서는 지금 합선침몰사건이 북과 관련되었다는 확증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괴당에 발표된 《조선결과》에 대해 수많은 의문점들을 제기하고있다.

남조선각계에서 합선침몰사건조사와 관련하여 제기하고있는 그 많은 의문점들 가운데서 몇가지만 보기로 하자.

피괴들은 경비함의 연돌(연통)과 절단면, 해저 등에서 검출한 화약성분을 《증거물》로 내놓으며 그것이 《어뢰에서 사용되며 북에서 쓰는 화약이기때문》에 합선침몰원인은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인내태평양 《민중의 소리》는 합선침몰구역이 오래동안 해병대가 포사격을 해온 훈련구역이며 문제의 화약은 전세에서 다 쓰고있는 화약이라고 하면서 조사단이 찾아냈다는 《화약분석》은 어뢰폭발의 흔적이 아니라 해병대의 포사격흔리의 흔적일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한 전문가도 《합선침몰해역이 해병대의 포사격구역으로서 바다밑바닥에서는 당연히 화약흔적이 나올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조사단발표대로 바다속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갑판위에 있는 연돌에서는 어떻게 화약흔적이 나올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합선침몰사건조사에 참가한 한 민간측 조사위원은 《연돌에 까지 화약성분이 남아있을 정도이면 선체밑바닥은 화약 성분으로 피칠감이 돼있어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화약성분이 《증거물》이라는 피괴당의 주장을 단호히 일축하였다.

피괴당은 합선침몰사건조사과정에서 저들이 활영한 합선침몰장면을 언론에 공개하였다고 하면서 원인규명의 결정적 단서를 하나로 될수 있는 함머리와 함꼬리가 분리되는 순간을 기록한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그런 영상자료를 갖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것을 남조선각계는 강하게 문제시하고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선침몰조사 합의와 함꼬리의 분리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그 동영상을 합동참모본부의 장교들이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까지 공개하였다. 그는 《함머리와 함꼬리의 분리장면은 가장 기초적인 증거물》이며 거기에는 《결정적 단서가 들어있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조선결과》 발표 때 그 동영상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강하게 대응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합선침몰사건 《조선결과》 발표가 있기 하루전인 19일 남조선에서는 류실되었다고 하고 침몰된 함머리의 가스타빈 엔진의 위치를 합선침몰사건조사단에게 알려주었다. 이로 하여 남조선각계의 여론이 즉각 파문되고있다.

원래 피괴들은 지난달 25일 《수중폭발》에 의해 함머리 《합선침몰사건》이 류실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가스타빈은 그 상태에 따라 합선침몰원인을 명확히 밝힐수 있는 핵심증거가 되었어야 하지만 매우 무겁기때문에 배가 침몰된 위치에 그대로 가라앉았다고 한다. 그런데 배의 침몰위치를 정확히 알고있는 피괴당국이 가스타빈 엔진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는 모략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그동안 군당국은 가스타빈이 《폭발에 의해 류실됐다.》는 가장하여 사고원인을 짜맞추었다고 하면서 가스타빈 엔진을 늦게 찾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평하였다. 인터넷

방송인 《민중의 소리》는 조사단이 류실되었다고 밝힌 가스타빈실시 인양작업중이던 《어뢰공격》으로 서둘러 단정된 《국방부》의 발표가 완전히 뒤집힐수 있는 증거라고 보도하였다. 인양작업에 참가한 남조선의 한 잠수기술전문가는 《국회》에서 《가스타빈기판실의 떨어진 부분을 맞추어 보면 《어뢰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괴당은 합선침몰원인을 규명할수 있는 핵심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않고 서둘러 다음날 《조선결과》 발표하고 어설표기 없이 《조선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실들은 합선침몰사건이 철저히 피괴들이 조작한 자작극이며 그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킨 피괴들의 《조선결과》 발표내용이 야말로 반공화국모략사동에 찬양한자들의 특대형사기극, 유치한 날 조 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손바닥으로는 해뿔을 가리려 수 없고 허허는 결대로 진실로 말하고 있다. 피괴당국은 제 아무리 진위를 부러여도 합선침몰사건조사내용의 모략적정체를 가리려수 없다.

본사기자 송영석

도발자의 가소로운 《대가》 라령

남조선피괴들이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를 터무니없이 절고드는 《조선결과》라는 것을 발표한다는 극단적인 반공화국대결사동의 첫머리를 불라라. 《조선결과》라는 것이 발표되자 때를 기다린듯이 《한나라당》 대표라는 자는 《조선결과》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명백한 증거》라고 수작질하던 끝을 우리를 거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라고 피대를 돌리었다. 이것은 또한 《원만한 남북관계구현을 위한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고하면서 북남전면대결을 노린 《대북결의안》의 가결에 《만장일치》로 응해나설것을 야당들에 강요까지 하였다. 그야말로 민족반역과 반동연대결에 환장한 역적당의 피수다운 망발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계는 물론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도 피괴당국의 그 무는 《조선결과》라는 것을 한결같이 반대해적하면서 비난과 조소를 금치 못하고있다. 그런데도 황당하고 유치한 짜맞추기와 어림잡작의 《조선결과》를 들고 이번 대가우두머리가 《증거》나, 《대가》니 하고 악착을 뽐내며 우리에게 감히 도발을 걸어 오고있으니 얼마나 파멸치한가.

역도가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고 떠든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적인 망동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대가를 치르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번 피괴합선침몰사건 《조선결과》는 보수페당이 미일상권과 공묘결탁하여 면밀히 계산하고 남조선에서 지난 시기의 반공화국조작사건들을 훨씬 통가하는 특대형사기모략극이다. 피괴들이 대외정책의 총파산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 《지방자치제선거》를 무난히 치르어 파초통치를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북남관계를 정상화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이따위 서순짜리 날조극을 연출해냈다는 것은 모략학 여지도 없이 드러났다.

불순한 목적을 노리는 자들은 언제나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드시 비열한 모략

행위에 매여달리는 법이다. 피괴당은 합선침몰사건이 터지자 그것을 처음부터 《북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강경대응》과 《보복》을 목리지게 떠들었다. 하지만 저들이 내뿜은 《북개입설》을 립증할만 한 것이면 특출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오호러 그것을 부정하는 각계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데 부러가 난 보수페당은 벽도 문이라고 내미는 식으로 우리를 약탈해 절고드는 것이다. 이번 《한나라당》 대표라는 자의 망발도 그 연장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다섯은 최악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대가치극을 꾸며내고 그것을 구실로 동족을 터무니없이 절고들면서 반공화국대결사동에 기승을 부리는 이교도행악한 음모군,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과연 용납할수 있겠는가. 피괴들이야말로 이번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우당 비한 대가를 치르어야 할 중범죄자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각계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책임져야 할 대상은 집권세력이라고 단호규탄하면서 당국자가 민중앞에 서서하고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북부인물들을 모조리 사법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페당이 여론의 이 정당한 목소리를 듣고는 귀를 틀어막고 사건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우리를 마구 헐뜯으면서 《대가》니, 《단호한 대응》이니 하고 고야대고있으니 얼마나 변명스러운가.

합선침몰사건은 계계놓고라도 반역페당이 나라와 민족앞에 지은 죄는 너무도 많았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6.15 공동선언발표 이후 총계 발전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남조선에 친미파초독재정치를 무라하고서 서약한대로 《한나라당》 페괴리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했다. 피괴당은 이번 모략사건까지 포함하여 집권후 저지른 모든 반민족적, 반동원적악행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천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조 남 수

주적은 세창자들의 불순한 야망

최근 남조선에서 합선침몰사건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사동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합선침몰사건이라는 것은 피괴들이 의외와 야합하여 대결을 고위하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조작한 회색의 사기극이다. 피괴들은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를 절고들 아무런 리유도 없으며 입이 열개라도 할 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도당은 제언에서 고야대면서 우리를 그 무는 《주적》으로 명문화하려고 도발하고 있다.

얼마전 피괴국방개혁추진위원회라는 자는 어느 한 회의에서 《조선문제에서 주적은 북》이라고 공공연히 제창했다. 이자로 말하면 보수페당이 합선침몰사건이 터지자 《안보 위기》에 대해 고야대며 조작한 《안보 총괄점검회의》의 의장자리를 올라앉은 자이다. 이런 대결기치판이 《주적은 북》이라고 고야대면 피괴들이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우리의

군사적대결을 더욱 격화시켜 북침전쟁을 기어이 일으키기 위해 미친듯이 날뛰고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페당이 집권한 이후 반민족적인 《주적론》이 다시금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만도 《한나라당》 페괴리들속에서 《주적개념》을 되살려야 한다는 망발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속에 피괴군부는 새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다시금 조야박고있고 시도하고있다.

문제는 피괴들의 《주적개념》 부활소동이 합선침몰사건과 결부되어 더욱 강화되고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보수페당이 합선침몰사건을 억지로 우리와 편박시키면서 남조선각계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주적론》을 구구 써먹고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강화되고있는 《주적개념》 부활소동은 피괴들의 수작대로 누구의 《도발》이나 《위협》에 그 원인이 있지 않다. 그것은 보수페당이 의도적으로 정체를 건장당기고 대결전쟁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버리고있는 매우 불순한 망동이다.

몇가지 력사적사실을 보기로 하자. 1978년 남조선에서는 그 무는 《남침》을 위해 《북》이 파놓은 《제3의 땅굴사건》이라는 것이 터졌다. 하지만 이것이 《유신》독재자가 집권위기를 모면하고 미제침략군의 남조선 《철수》를 중지시

키기 위해 당시 피괴보병 제1사단장이었던 전두환영도를 시켜 조작해낸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드러났다.

당시 현지조사를 진행한 지질학자들이 조사보고서에 밝힌 내용도 《땅굴사건》이라는 것이 완전히 조작된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외에도 남조선에서는 피괴들에 의해 《아용산 폭탄테러사건》과 《858기 폭파사건》 그리고 《참치사건》이니, 《무장간첩침투사건》이니 하는 우리 공화국을 절고드는 수많은 조작극들이 꾸며졌다. 그러나 력사의 진실은 결코 가리려수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과거 독재 《정권》시기에 북과 연결되었다고 요란히 광고된 사건들이 모두 정권세력의 《정권안보》와 전쟁도발소동합리화에 악용된 날조극이라는 것이 력이 어 폭로되고있다. 사실들은 력대 피괴집권세력이 불순한 정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를 터무니없이 절고들며 북남대결소동에 광분해왔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실용정권》이 《주적개념》 부활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것도 본질에 있어서 그것들과 다를바 없다. 그것은 《북의 위협》을 적극 여론화하기 위한 합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를 《주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북남관계를 파괴의 대결시대로 완전히 되돌리고 의세와 작당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반민족적인 대결전쟁소동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합선침몰사건 《조선결과》에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건조사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는 보수페당의 비열한 모략적정체를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합선침몰사건 《조선결과》에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건조사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는 보수페당의 비열한 모략적정체를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합선침몰사건 《조선결과》에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건조사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는 보수페당의 비열한 모략적정체를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합선침몰사건 《조선결과》에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건조사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는 보수페당의 비열한 모략적정체를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합선침몰사건 《조선결과》에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건조사를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는 보수페당의 비열한 모략적정체를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대북대결정책중단과 함께 해군준비위중립제정까지도, 합선침몰사건의 학적 및 교신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국회》에서 열린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사대결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사건 책임담당자인 군이 조사를 맡았기때문에 결과를 신뢰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선침몰사건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의 다른 의원은 당회의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건조각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괴당국에

미국 식둔감술

최근 미집권자가 《언론자유법》이라는 데 서명하였다. 언론단합의 탄우장인 미국에서 《언론자유법》이 생겨난 것은 세상사람들을 웃기는 일이다.

머우기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법》이 《전세계국가들의 언론의 자유보장을 감시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역할을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것이다.

미국은 새 《언론자유법》을 자막대기로 세계각국의 언론의 자유행정을 평가하려 하고있다. 말하자면 미국이 《국제언론재판관》으로 둔갑하여 세계에 대고 저들의

미국 식둔감술

《언론자유법》을 휘둘러대자는 것이다. 혹시 사람들은 미당국자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살라지려 않았는가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국내법을 국제법우에 올려놓고 세계를 제멋대로 주물러대려는 미국의식행의 극치이다. 물론그래 미국이 진실로 언론의 자유를 바라고있는가.

미국이 그런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쇠사슬에 묶이워 한바 소리를 못하는 저들의 한낱 언론실태부터 바로 잡는데 낫을 돌려야 마땅할것이다.

미국이 그런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쇠사슬에 묶이워 한바 소리를 못하는 저들의 한낱 언론실태부터 바로 잡는데 낫을 돌려야 마땅할것이다.

미국 식둔감술

미국이 제도로 셋지 못하는 주체에 국내법도 세계각국의 언론문제를 다스려려 하고있으니 이야말로 오만망자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언론자유법》을 휘둘러 자와 평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언론과 공정한 언론의 정의를 목소리, 날로 높아가는 반미합성을 짓뭉쳐보려 하고있는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미국이 《언론자유법》을 휘둘러 자와 평화를 지향하는 진보적언론과 공정한 언론의 정의를 목소리, 날로 높아